전남 지자체들 24시간 비상근무…수해 복구 총력전

담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장성군, 전 직원 소집 피해복구
나주시, 피해 최소화 실시간 대응
해남군,태풍 상황판단회의 대비

장성군은 공직자 600여명을 투입해 수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 〈장성군 제공〉

해남군이 9일 제5호 태풍 '장미'의 북상에 따라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함평군 공무원들이 주택 침수로 물에 잠긴 가재도구를 꺼내고 있다. 〈함평군 제공〉

전남지역에 최대 6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했다.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전 직원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수해 현장에 배치,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담양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영산강 범람으로 피해가 큰 나주시는 24시간 시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해남군은 다가오는 태풍 '장미'에 대한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담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최형식 담양군수는 9일 오후 담양지역 수해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담양지역에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봉산면 최대 641.5㎜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는 도로와 하천, 관광시설과 주택 등 약 1100억 원의 피해가 잠정 집계됐으며,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 군수는 정 총리에게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담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성군, 비상근무 3단계 발령

장성군은 지난 8일 공무원 비상근무 3단계를 발령, 전 직원을 소집한데 이어 9일에도 전원을 소집했다.

장성군은 600여 공무원을 각 읍·면 수해 현장으로 배치하고 하천 범람과 도로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해 빠른 원상복구를 추진했다. 피해 복구에는 200여 마을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힘을 보탰다.

공직자들은 수해를 입은 민가를 직접 찾아 토사와 고인물을 제거하고 청소와 정리 작업을 거드는 등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농가 피해현황 조사도 진행됐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40여명은 11개 읍·면에 파견돼 과수·벼·시설하우스·축사·양곡창고 등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농작물 관리 등 사후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였다.

장성군보건소는 침수 피해를 입은 80여 가구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나눠주며 각종 전염병 및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나주시, 24시간 비상대응체제 가동

나주시는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강인규 시장은 나주경찰서·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영산강 범람에 따른 대형 재난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실시간 공조 체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봉순 부시장도 '집중호우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이틀 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공공·사유시설물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실시간 철저한 대응 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강 시장은 "영산강 범람으로 다시·문평 지역 주택·농경지 침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대응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화순군, 전 직원 비상근무

화순군은 지난 7일 오후부터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0개 실·과·소와 13개 읍·면이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해 침수, 하천 범람, 시설물 파손, 토사 유실 등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청 직원들은 육군 6753부대원들과 함께 침수된 화순읍 신기리 소재 30여 가구의 피해 복구를 돕는 등 피해 복구에 나섰다.

◇함평군, 수해 농가에 농업용미생물 긴급 지원

함평군은 지난 8일부터 수해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 미생물 3종(바실러스, 유산균, 효모균) 6000 l 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함평지역에는 지난 7~8일 이틀간 총 287㎜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노지 작물과 시설 작물 모두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함평군은 빠른 복구를 위해 농촌지도사를 통한 각종 병해충방제 지도에 나서는 등 피해 작물 현장 긴급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익 군수 등 공무원들은 9일 휴일을 반납한 채 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함평경찰서·함평소방서 등과 연계해 주민 대피 작업과 양수작업, 도로 긴급복구 작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해남군, 태풍 장미 상황판단회의

해남군은 제5호 태풍 '장미'의 북상에 따라 9일 명현관 군수 주재로 전체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 판단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상 현황과 부서별 대처 계획, 군민안전과 농작물 관리, 주요시설물 점검 등 대비사항을 점검했다.

명 군수는 이번 태풍이 소형급이지만 집중호우에 연이어 발생한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한 선제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최근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져 적은 양의 비에도 비탈면 붕괴 등 산사태가 우려되고, 집중호우에 따른 저지대 침수 등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 시설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박희석·이용호·황운학·배영재·손영철·노영찬 기자

소 10여마리 해발 531m 구례 사성암까지 피신 '화제'

유리광전 앞마당에서 풀 뜯어먹고 휴식
뛰놀거나 울음소리 없이 얌전한 모습
드라마 '더킹' 촬영…CNN '사찰 33' 선정

구례 서시천 범람으로 축사가 침수되자 소들이 절로 피신해 화제다.

지난 8일 오후 1시께 해발 531m 높이의 구례군 문척면 오산 사성암에 소 10여마리가 나타났다.

소들은 대웅전 마애약사여래불이 있는 유리광전 앞마당에서 풀을 뜯어 먹거나 휴식을 취했다.

풀을 뜯던 소들은 오후 2시께 사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소 주인이 나타나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당시 소들은 뛰놀거나 울음소리도 내지 않고 얌전한 모습이었다고 전해졌다.

사성암 관계자는 "소 주인이 다른 주민들의 연락을 받고 1시간쯤 지나 사성암에 찾아와 소들을 인솔해 데려가기까지 정말 얌전히 절에서 쉬다가 떠났다"고 말했다.

소떼는 사성암 인근 축사를 탈출해 해발 531m 높이에 위치한 사성암까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3㎞가량을 올라왔다. 이 소들은 구례 섬진강 지역에 내린 폭우로 축대가 무너지자 놀라 축사를 뛰쳐나온 뒤 피난 행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근 간전면과 토지면 도로에서도 축사를 뛰쳐나온 소떼가 목격됐고, 일부 소들은 섬진강 둑방과 군부대 지붕 등에서 발견돼 구조되기도 했다. 섬진강 범람으로 침수된 구례읍 양정마을 등에서는 축사에 물이 차오르자 지붕 위로 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구례지역은 서시천 제방이 무너지고 섬진강이 범람해 곳곳이 물에 잠겼다. 구례에는 지난 7~8일 이틀간 평균 380㎜의 폭우가 내렸다.

소떼의 '사성암 피신' 소식이 알려지면서 구례 오산 사성암이 주목받고 있다.

이 절은 최근 종영한 드라마 '더킹 : 영원의 군주'의 촬영지이다. 2회에서 이림(이정진)이 단청을 칠하는 사찰이 바로 '구례 사성암'이다. 드라마 '추노'와 '토지', 영화 '군도'에서도 등장했다.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 33'에 선정됐다.

기암절벽 위에 절묘하게 자리 잡은 사성암은 경관이 뛰어나 국가문화재 명승 제111호로 지정됐다. 사성암이 위치한 오산(鰲山)은 해발 530m로 그리 높지 않지만, 암자에 오르면 구례의 들녘과 섬진강, 지리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찰이다. 사성암은 여느 절과는 달리 넓은 마당이 없다. 대신 가파르게 올라가는 돌계단이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

사성암은 백제 성왕 22년(544)에 연기조사가 건립했다고 전해진다. 오산암이라 불리다가 이 곳에서 원효·의상·도선·진각 등 4명의 고승이 수도했다고해서 사성암으로 개칭됐다고 한다. 사성암 법당인 약사전에는 고려 초기 작품인 마애여래입상(전남유형문화재 제220호)이 있다. 약 25m의 기암절벽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왼손에는 약사발을 들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지난 8일 구례지역에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축사가 침수되자 소떼가 홍수를 피해 사성암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사성암 제공〉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감미료 無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